"천만 영화만 영화냐?"…독과점이 남긴 화두



송강호 주연의 '기생충'부터 류승룡의 '극한직업'을 비롯해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2', '알라딘', '어벤져스:엔드게임'(왼쪽부터 시계방향)이 올해 1000만 관객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3편이 독과점 논란 디즈니 작품
영화 다양성 위해 대안 마련 시급

올해 극장 관객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극한직업'부터 '겨울왕국2'까지 1000만 영화가 다섯 편이나 탄생한 힘이다. 초유의 수치는 또 다른 기록으로 이어지지만, 이를 바라보는 영화계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상 첫 1000만 영화 다섯 편

28일 현재 2019년 극장 관객은 총 2억 2404만2167명이다. 2013년 처음 연간 2억 관객 시대를 맞은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1000만 영화도 처음으로 다섯 편이나 탄생했다. 1월 '극한직업'(1626만 5618명·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부터 4월 '어벤져스:엔드게임'(1393만 4592명), 5월 '알라딘'(1255만2283명)과 '기생충'(1008만5250명), 이어 11월 '겨울왕국2'(1319만192명)까지다. 2014년 '명량', '겨울왕국' 등 세 편이 1000만 관객을 모은 지 5년 만의 기록이다.

코미디 열풍을 일으키면서 역대 흥행 2위에 오른 '극한직업'과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의 '기생충'이 만든 반향도 컸지만, 올해는 디즈니가 제작하고 직접 배급한 할리우드 영화의 초강세가 뚜렷했다. 1000만 영화 가운데 외화가 모두 '어벤져스:엔드게임'의 마블스튜디오를 거느린 디즈니 작품이다. 특히 이들 영화는 후속 시리즈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만큼 디즈니의 저력은 향후 국내 영화계와 극장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편의 1000만 영화는 그만큼 특정 작품의 독주가 공고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영점유율이 이를 증명한다. '겨울왕국2'의 상영점유율은 일일 최고 73.9%까지 올랐다. 하루 전국 극장 상영작 가운데 73.9%가 단 한 편으로 도배됐다는 뜻이다. '어벤져스4'도 최고 80.9%에 달했다. 한국영화가 동시기 개봉작을 고려해 상영점유율을 50% 이하로 조정하는 것과 달리 디즈니는 70~80%대를 넘나드는 '무소불위'의 위치를 다지고 있다.

때문에 1000만 관객 달성도 순식간이다. 2015년 '어벤져스2'는 25일이 걸려 시리즈로는 처음 1000만 관객을 모았지만, 올해 '어벤져스4'는 불과 11일 만에 같은 기록을 썼다. '겨울왕국2'도 2014년 1편(46일)의 기록을 한달 여 앞당겨 17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구조의 문제, 대안 마련 시급"

물론 1000만 명 동원에 성공한 영화들이 고유한 재미와 완성도로 관객의 선택을 받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영화계가 목소리를 내는 부분 역시 각 작품의 경쟁력과 완성도가 아니다. 특정 영화의 극장 '독식'을 유도하는 지금의 시스템, 이를 타개해 다양한 영화에 상영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집중된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스크린 독과점에 따라 영화 스코어가 양극화하는 상황은 구조적 문제"라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마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독과점에 따른 피해도 속출했다. 11월13일 개봉해 호평을 얻으면서 관객을 늘려가던 '블랙머니'는 일주일 뒤인 21일 '겨울왕국2' 개봉 직후 스크린이 3분의1로 축소되는 직격탄을 맞았다. 연출자 정지영 감독은 "'겨울왕국2'는 어린이도, 부모도 좋아하는 작품인데 오랫동안 극장에서 보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꼭 다른 영화에 피해를 주면서 스크린을 독과점하고 단기간 매출을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영화계는 독과점 금지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 한 편의 영화가 50%의 상영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크린 상한제' 등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애물단지'가 돼버린 지상파 연말 시상식

무대 사고·뻔한 수상…"역대 최악"
'가요대제전'은 보복성 갑질 의혹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따로 없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상식 등 연말 무대가 그렇다. 올해 각 방송사는 21일 KBS '2019 연예대상'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대규모 가요 축제무대를 준비했다. 하지만 한 달여 짧은 준비 기간, 과도한 섭외 경쟁 등으로 빚어진 각종 돌발 상황에 시청자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의 화살은 25일 SBS '가요대전'과 27일 KBS '가요대축제'에 집중됐다. 사전 무대 점검이 미흡했던 탓이다. 걸그룹 레드벨벳 웬디는 '가요대전' 리허설 도중 무대장치 고장으로 추락해 골반과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에이핑크는 '가요대축제'를 위해 준비한 '응응'(%%) 무대를 끝까지 소화하지 못하고 중도에 내려와야 했다. 시청자들은 "그동안 연말 무대 중 최악"이라는 혹평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BS '연예대상'과 28일 SBS '연예대상' 등은 예년과 다르지 않은, 과도한 공동수상으로 시청자 원성을 샀다.

연예인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룹 슈퍼주니어 은혁은 웬디의 부상 후 SNS를 통해 "모든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노래하고 춤추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구라는 SBS '연예대상'에서 "방송사 3사 본부장이 만나 (시상식에 대한)대화를 하라. 시상식도 바뀔 때가 됐다"며 방송사 행태를 꼬집었다.

31일 MBC '가요대제전'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불참으로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출연 불발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보복성 갑질 의혹'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3

유승호, 생후 60일된 환아 치료 도와


유승호

연기자 유승호가 한 환아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생후 60일 된 한 아기가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간질환으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유승호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유승호의 인터넷 팬카페에 글을 올려 "한 달 이상 병원에서 보낸 뒤 퇴원하던 중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도움을 준 이가 유승호라는 얘기에 놀랐다"고 밝혔다.

BTS 월드투어 마이크, 美 경매에 출품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마이크가 미국 자선 경매에 출품된다. 29일 미국 경매업체 줄리앙 옥션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에서 사용한 7개의 마이크 7개가 내년 1월 현지 경매에 출품된다. 이 마이크에는 멤버들의 사인이 들어 있다.

트와이스 다현 개인정보 유출사고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다현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9일 "이날 오전 공항 입출국 과정에서 다현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촬영을 통해 유출돼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및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행위이다. 유포 상황 및 지속 유포 발생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가황토
공장직영으로 저렴하게
기존방을 황토찜질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특허 받은 생황토벽면
* 건강을 위한 편백나무 천정
* 황토바닥
* 전용 전기 온수보일러 난방
* 고급 한지장판
* 20년 경력의 꼼꼼한 시공

옥탑방을 황토찜질방으로
작은 방을 찜질방으로

구경하는 집 구합니다 NAVER 이가황토 검색 www.sootdeco.com 010.4121.4800